



컴백수지

“나만의 감성 더 깊어졌어요”

미니앨범 ‘페이스스 오브 러브’ 발매 사랑의 여러모습 깊이있게 담으려 노력

가수 겸 배우 수지(24)는 작년 12월 미쓰에이 해체로 온전히 홀로서기를 하면서 “더 똑하게 마음을 먹었다”고 달라진 마음가짐을 밝혔다. 1년 만에 솔로로 컴백한 그는 “솔로로는 앨범을 낼 때마다 떨린다”면서도 그룹 활동 때와 달리 자신의 색깔을 온전히 담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지는 29일 오후 3시 서울 광진구 광장동 예스24라이브홀에서 두 번째 미니앨범 ‘페이스스 오브 러브’(Faces of Love) 쇼케이스를 열고 자신의 평소 생각대로 사랑의 여러 모습을 담아냈다고 말했다. 수지는 “사랑에 대해 깊이 있게 담아보고자 많은 고민을 했다”며 “예전에도 사랑 노래를 불렀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런 감정이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선공개곡으로 선보여 음원차트 정상을 휩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가 슬프고 애절한 사랑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노래했다면, 타이틀곡 ‘홀리데이’(HOLIDAY)는 사랑에 빠져 가장 행복하고 황홀한 상태를 표현했다고 비교했다. 또한 곡씩 짚어가면서 “잘자 내 꿈까지”는 그리움과 원망이 섞인 사랑의 모습이며 ‘소버’(SOber)는 마음을 숨기고 싶으면서도 드러내고 싶은 귀여운 감정, ‘너는 밤새도록’은 사랑의 그리움, ‘나쁜 X’는 장난스럽게 도발하는 감쪽한 모습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수지는 그중 ‘소버’와 ‘너는 밤새도록’의 가사를 쓰고, ‘나쁜 X’의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이 있고 사랑의 의미가 다를 것”이라며 “각기 다른 모습을 담고 싶었다”고 말

했다. 수지는 이번 앨범을 위해 총 4편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이날 쇼케이스에서 공개된 ‘홀리데이’ 뮤직비디오에서 수지는 24살의 아름다움을 시종일관 발산한다. 핑크빛 눈을 모자를 쓰거나 하늘하늘한 핑크빛 원피스를 입고서 사랑을 걷고, 아름다운 해변을 배경으로 한가로이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미쓰에이 시절에는 섹시한 이미지, 영화에서는 ‘국민 첫사랑’으로 불리며 청순한 이미지를 보여준 그는 여러 모습이 모두 자신 안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난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닌데’란 생각에 ‘국민 첫사랑’이란 수식어가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죠.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실망스러워하실까 봐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죠. 리얼리티에서 꾸밈없는 모습도, 또 섹시한 모습도, 가끔 청순하고 여성스러운 모습도 다 제 모습이거든요. 이런 대중이 기대하는 이미지에 부응하려 한다기보다 제 안의 여러 모습을 인정하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수지는 가수로 성공한 데 이어 배우로도 주인공 자리를 꿰차며 두 분야에서 모두 입지를 다진 대표적인 스타다. 그는 두 분야의 접수를 매겨달라는 물음에 “짜게 주고 싶다”며 “100점 만점이라면 (전반적으로) 40점이다. 연기 활동 때는 굉장히 책임감이 크고 부담스럽기도 해서 저 자신에게 엄격해지는 것 같고, 앨범 활동 때는 조금 더 제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표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대 후 첫 드라마 잘 마쳐 뿌듯”

중영 ‘저글러스’ 최다니엘... ‘츄데레 매력’ 여심 사로

“3년 만의 드라마라 긴장도 많이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잘 마친 것이 가장 뿌듯합니다.” KBS 2TV 월화극 ‘저글러스’의 남치원을 통해 무심한 듯 다정한 매력으로 여심(女心)을 흔들었던 배우 최다니엘(32)은 29일 서울 논현동에서 만났다. ‘저글러스’는 최다니엘의 전역 후 첫 작품이었다. 최다니엘은 “군대에 다녀오니 현장에서 (강)해정 누나 빼고는 저보다 어리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했지만 서로 잘 어우러졌다”고 웃었다. 그는 남치원의 인기 비결에 대해서는 스타일리스트에게 공을 돌렸다. “제가 팔다리가 길고, 어깨는 좀 있는데 몸통은 또 작아요. 옷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스타일리스트가 생방송처럼 바쁜 와중에도 멋진 옷들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았어요. 제가 평소에는 옷을 정말 못 입거든요. (웃음)” 그는 그러면서 “치원은 평소에는 차갑고 사무적이지만 은근슬쩍 ‘허당기’가 보이는 캐릭터”라며 “저랑 그런 점이 실제로 비슷하다. 그런 면을 좋아해 주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극 초반 공개해 화제를 모은 ‘남치원의 백문백답’에 대해서도 실제 자신의 답과 60% 이상 비슷하다고 했다. 그는 또 치원이 ‘첫경험’ 질문에 “짧고 강렬”이라고 썼다가 박박 지우는 장면과 관련해 “엔딩 컷이었는데, ‘돌싱’(돌아온 싱글)인 치원이 ‘첫경험’ 질문에 ‘맘치’ 하기에 ‘뒤에 엄청난 게 있나?’ 기대했는데 뭐가 없더라”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최다니엘은 파트너였던 백진희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저는 현장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진희는 굉장히 준비해오는 편이예요. 중간 지점을 찾아야 했죠. 그래도 ‘소소한 장면’들을 살리려는 제게 진희가 잘 맞춰줬어요. 게다가 진희가 초반에 이끌어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바깥자 다쳤거든요. 힘들었을 텐데도 잘해줬어요. 정말 고맙죠.” 2005년 KBS 2TV 드라마 ‘황금사과’로 데뷔한 최다니엘은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2012), ‘공모자들’(2012), ‘열한시’(2013), ‘악의 연대기’(2015), ‘치외법권’(2015)과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2008), ‘자봉 뚝고 하이킥’(2009), ‘동안미녀’(2011), ‘유령’(2012), ‘학교 2013’(2012), ‘연애를 기대해’(2013), ‘빅맨’(2014) 등에 출연했다.. /연합뉴스



이민호 팬클럽, 쌀 1톤 기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배우 이민호(31)가 팬클럽 회원들과 함께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쌀 1t을 기부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30일 “이민호와 그의 팬클럽인 ‘미노즈’ 회원들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을 기념해 쌀 1t을 전해왔다”며 “이 쌀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운동선수의 꿈을 키우는 아동과 장애 아동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호의 소속사 측은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이민호의 국내외 팬들이 보내준 따뜻한 마음이 뜻깊게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민호와 이민호의 팬들은 2014년 이민호가 직접 고안한 사회공헌 기부 플랫폼 ‘프로미즈’를 통해 환경 개선을 위한 숲 조성, 봉사 활동, 기금 전달 등 나눔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프로미즈는 2016년에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협약을 맺고 아동 지원에 협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Time, Program Name, and Details.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sports programs.

Table with 4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tails. Lists EBS1 programs including news, documentaries, and entertainmen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31일 ~ 2월 15일 쫓아)
48년생 지혜가 많은 이를 찾아가 조운을 구하는 것이 좋다. 60년생 모든 일이 순행하면서 행운을 가져다주리라. 72년생 상대의 속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84년생 실행의 규모와 정도에 따른 차이가 크다. 행운의 숫자 : 69, 31
49년생 체계를 바탕으로 해야만 생산적인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61년생 한 곳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 73년생 제반 준비를 해야 하리라. 85년생 열 행태는 그대로 유지하자. 행운의 숫자 : 20, 40
50년생 원래부터 관련이 없는 것이었으니라. 62년생 학수고대 하여 왔던 바를 목전에 두고 있다. 74년생 기존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버리고 확실히 전환해 보자. 86년생 장고한 후에 판단해도 늦지는 않겠지만 속도감도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08, 61
51년생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형상이니 희망적이다. 63년생 경험을 통한 체득의 가치가 대단히 크다. 75년생 발전을 위한 각고의 감내가 요망된다. 87년생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점차 수월해지리라. 행운의 숫자 : 71, 48
52년생 합리적으로 수용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64년생 갈급해 왔던 것이 곧 해결되겠다. 76년생 고정 관념을 깨어 새로운 것이 보인다. 88년생 뜻이 곧다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니 계속 정진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72, 57
53년생 노골심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니 과감해야 한다. 65년생 만일 점검한 후에 진행하라. 77년생 관행에 얽매어 남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일이다. 89년생 마음이 열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4, 1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